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6년 2월 생산은 전월대비 2.5% 증가(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전 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2.5% 증가했음.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0.5% 증가했음.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비금속광물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6.1% 증가했음(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했음(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2026년 2월 소비는 전월대비 보합,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3.5%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5.4%),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5%)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6%)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보합이었음(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40.4%)와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3.8%)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3.5% 증가했음(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7.1%) 및 토목(25.7%)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19.5% 증가했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월		
		2023	2024	2025p	2025				2025		2026
					1/4	2/4	3/4	4/4p	2월	1월p	2월p
생산	전 산업	1.1	1.6	1.1	0.2	0.3	0.9	-0.6	0.4	-0.9(4.7)	2.5(0.5)
	광공업	-2.6	4.1	2.8	0.7	1.0	1.5	-3.4	0.3	-2.4(6.8)	5.4(-2.2)
	제조업	-2.6	4.3	3.0	0.8	0.9	1.4	-3.3	0.1	-2.8(6.8)	6.1(-1.8)
	건설업	7.8	-4.6	-16.5	-7.2	-2.6	-0.8	-4.1	-1.0	-7.8(-7.1)	19.5(1.2)
	서비스업	3.4	1.3	2.0	0.3	0.4	0.7	1.2	0.9	-0.2(4.5)	0.5(2.1)
소비	소매판매	-1.3	-1.9	0.3	0.6	-0.6	1.2	0.6	1.6	2.9(0.7)	0.0(4.7)
투자	설비투자	-4.8	3.0	1.2	-2.2	0.3	0.6	-3.8	9.0	5.3(13.8)	13.5(5.3)
물가		3.6	2.3	2.1	1.2	0.3	0.3	0.6	0.2	0.3(2.0)	0.3(2.2)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O),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3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5년 3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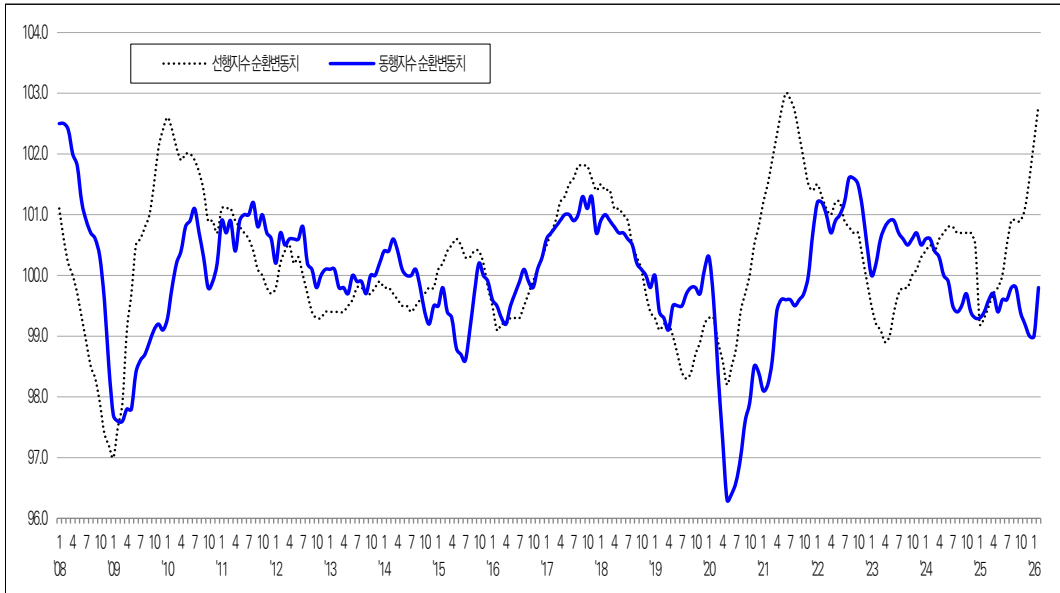
○ 202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100)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했음(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전월대비 교통(3.4%), 교육(0.5%), 보건(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주택·수도·전기·연료(0.2%), 통신(0.2%), 음식·숙박(0.1%)은 상승, 의류·신발, 주류·담배는 변동 없고, 식료품·비주류음료(-0.9%), 기타 상품·서비스(-0.1%), 오락·문화(-0.1%)는 하락했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3% 하락,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1.2% 상승하여 전월대비 0.6% 상승했음.

◆ 2026년 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9%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8%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8p 상승했음.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6p 상승했음.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기종합지수』,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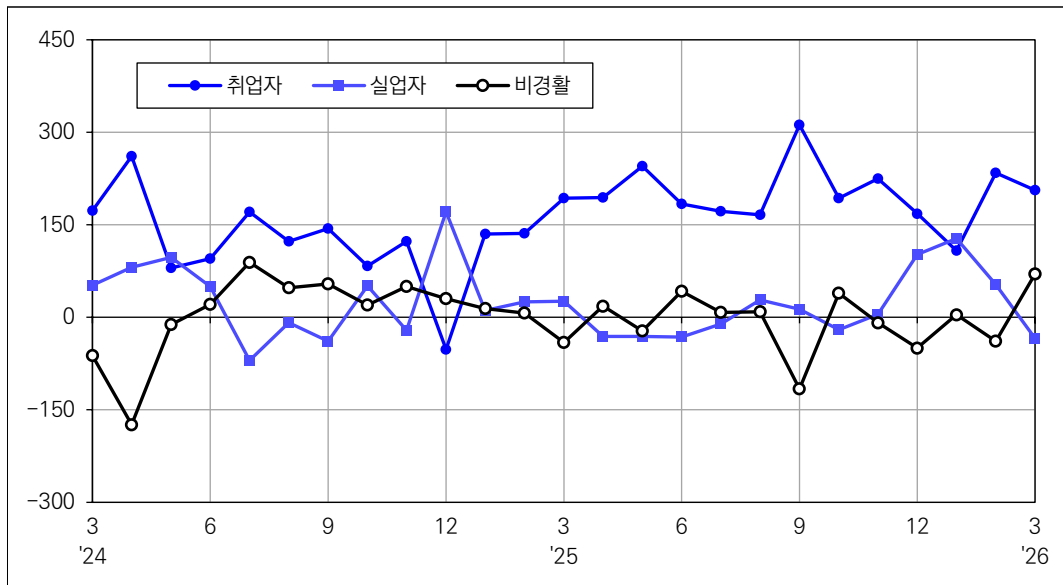
●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 수준 유지

- 2026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만 6천 명 증가(전월대비¹⁾ 1천 명 감소)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3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제조업·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은 감소폭이 확대됐고,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됨.
- (서비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도소매에서 감소로 전환됐고, 교육서비스 및 예술·스포츠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정보통신업에서는 증가로 전환됨.
- (중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임시직에서 감소로 전환된 반면 고용주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실업·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3만 5천 명 감소(전월대비 7만 8천 명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 9천 명 증가(전월대비 8만 6천 명 증가)함.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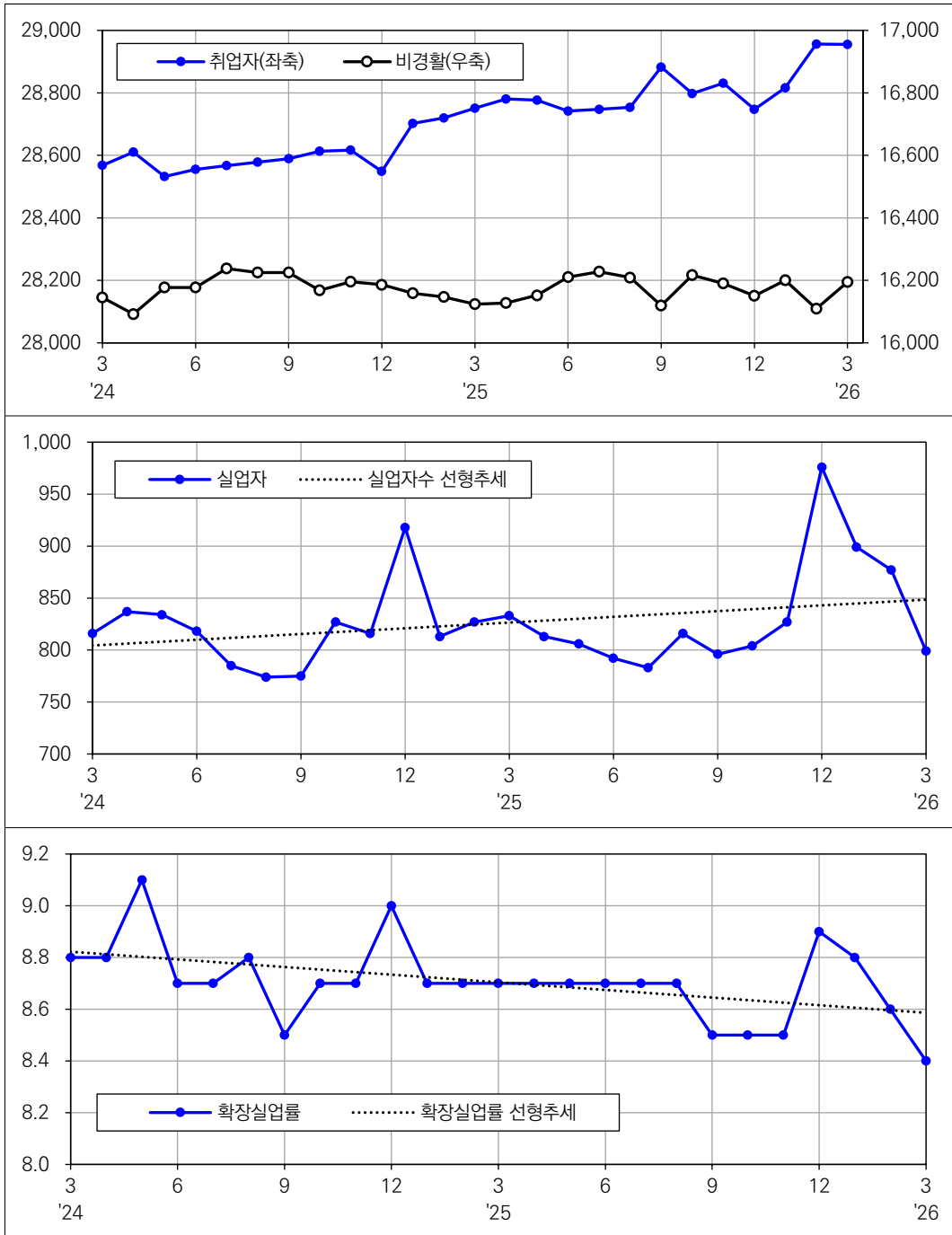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상), 실업자 수(중) 및 확장실업률(하) 변화

(단위 : 천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3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20대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 협회·개인서비스 및 사업서비스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전문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업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 30대 취업자 수는 정보통신업, 운수창고 및 사업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전문과학기술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됐고, 교육서비스에서는 감소로 전환됨.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됐고, 공공행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실업자 수는 20대와 60세 이상에서 감소로 전환됐고, 30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2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취업자	24	17	20	(8)	-199	-163	-167	(-13)	101	86	112	(45)
실업자	8	11	0	(-4)	12	7	-10	(-10)	25	49	25	(-26)
비경황	3	13	23	(0)	-15	-43	-28	(-4)	-42	-51	-53	(-13)
실업률	3.8	5.4	-0.8	(-2.8)	0.7	0.5	0.1	(-0.2)	0.4	0.8	0.4	(-0.5)
고용률	1.0	0.7	0.8	(0.3)	-1.4	-0.8	-0.8	(0.1)	0.5	0.3	0.6	(0.5)
	40대				50대				60세 이상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취업자	-3	0	-5	(7)	45	6	5	(-33)	141	287	242	(-40)
실업자	-17	-22	-30	(-7)	-1	-5	-7	(10)	101	14	-13	(-21)
비경황	-99	-93	-78	(-10)	-101	-61	-61	(17)	257	195	266	(102)
실업률	-0.2	-0.4	-0.4	(-0.1)	-0.1	0.0	-0.1	(0.2)	1.3	0.1	-0.3	(-0.3)
고용률	1.2	1.2	1.1	(0.2)	1.0	0.6	0.7	(-0.3)	-0.5	0.5	0.1	(-0.4)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3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전문과학기술 및 농림어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정보통신업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공공행정 및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교육서비스 및 예술·스포츠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전월대비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및 협회·개인서비스 등에서 증가했고, 교육서비스, 제조업, 공공행정 및 예술·스포츠에서 감소함.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농림어업	-107	-90	-58	-8	-7	15
광업	0	1	2	1	1	0
제조업	-23	-16	-42	47	1	-41
전기·가스	3	5	4	-1	0	3
수도·하수·폐기업	-9	-13	-17	-5	2	4
건설업	-20	-40	-16	25	-26	4
도소매	23	22	-18	-15	11	-4
운수창고	71	81	75	-14	17	13
숙박음식	-16	-27	-2	6	10	37
정보통신업	-21	-42	3	-6	-4	36
금융보험	18	22	9	-4	1	20
부동산	30	35	34	5	5	6
전문과학기술	-98	-105	-61	-32	-16	29
사업서비스	42	42	21	-5	-9	-4
공공행정	-41	-30	-77	6	17	-32
교육서비스	36	58	17	12	5	-48
보건복지	185	288	294	141	145	10
예술·스포츠	45	70	44	3	9	-17
협회·개인서비스	11	-14	1	11	-13	22
가구 내 고용	-18	-15	-11	2	1	-4
국제외국	-2	1	2	-1	3	0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3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임시직에서 감소로 전환된 반면 고용주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무급가족종사자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 상용직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정보통신업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됐고, 숙박음식에서는 증가로 전환됨.
 - 임시직은 보건복지 및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축소됐고, 공공행정 및 숙박음식에서 감소폭이 확대됐으며, 예술·스포츠에서는 감소로 전환됨.
 -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도소매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주는 전문과학기술 및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됐고, 보건복지, 숙박음식 및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상용직	192	158	140	17	-1	-3
임시직	-97	8	-59	153	136	-82
일용직	26	39	32	0	0	-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56	60	105	12	3	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11	10	0	-3	24	-8
무급가족종사자	-58	-41	-12	-6	4	23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농림어업	-3	-6	1	-7	-9	-10	-2	-3	1	-2	-9	-5	-50	-31	-34
제조업	15	-11	-34	-6	8	-5	-4	11	13	-1	-4	4	-22	-17	-19
건설업	9	-2	-22	-14	-29	-13	-5	-14	18	-3	1	-8	-5	4	6
도소매	-20	1	-6	-6	-49	-44	-21	-7	-24	38	41	39	16	12	0
운수창고	38	40	43	8	5	4	11	18	13	2	5	9	11	11	6
숙박음식	-7	-4	35	-29	-18	-36	10	10	7	23	16	22	7	-5	-9
정보통신업	-41	-55	-8	12	0	2	0	3	-2	-7	-4	-5	17	15	16
금융보험	15	18	7	13	9	10	0	0	0	2	1	0	-11	-5	-8
부동산	19	12	8	14	9	6	-3	-4	-5	-4	5	9	1	11	13
전문과학기술	-93	-91	-73	-7	-11	-2	4	5	8	-4	-6	5	4	-1	4
사업서비스	27	12	5	-11	4	5	26	24	5	0	5	8	-3	-3	-2
공공행정	4	13	-13	-45	-44	-66	0	0	2	0	0	0	0	0	0
교육서비스	29	30	2	-4	14	1	2	5	-2	1	1	8	4	5	7
보건복지	167	165	195	3	115	85	4	1	-4	12	9	18	-1	-2	0
예술·스포츠	38	48	36	-3	19	-1	1	1	1	10	10	10	0	-5	-2
협회·개인서비스	4	-3	-20	5	2	18	3	-10	-2	-11	-10	-10	18	14	18
가구 내 고용	1	2	2	-23	-18	-16	0	-2	-1	0	0	0	4	4	3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비경황) 3월 전년동월대비 전직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30대에서 증가 폭이 축소됐고, 60세 이상에서는 감소로 전환됨.

- 업종별로 30대는 사업서비스에서 감소로 전환됐고, 협회·개인서비스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60세 이상은 사업서비스 및 공공행정에서 감소로 전환됨.
-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은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여성은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통학'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쉬었음'에서는 증가로 전환됨.

〈표 5〉 전직 일자리 경험자의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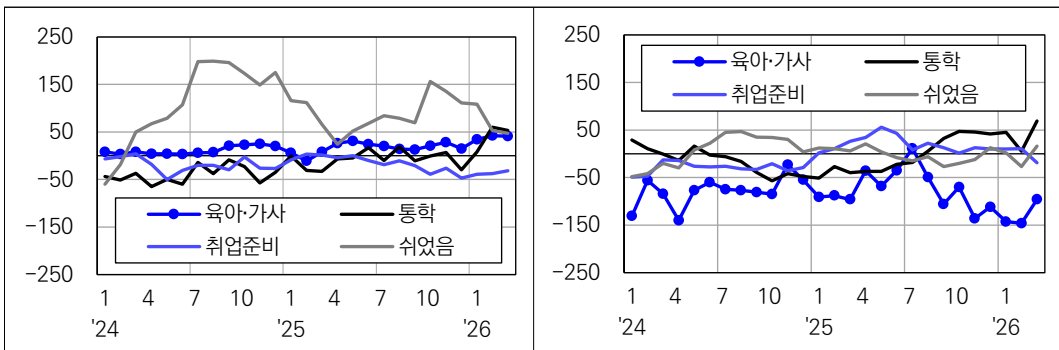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체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
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	31	10	2	5	37	26	-19	-19	-3	9	14	-11
제조업	-7	10	-9	-6	-1	4	-6	1	7	11	1	-1
건설업	-22	-13	-3	-2	-4	-5	-5	-4	-9	2	-1	-4
도소매	19	29	12	20	8	9	-9	-10	5	4	3	5
운수창고	8	-8	-1	-2	-2	-3	12	3	0	0	-2	-6
숙박음식	-5	-23	-8	-18	12	10	2	-5	-7	-7	-4	-4
정보통신업	12	16	5	11	6	5	-5	0	3	0	2	1
금융보험	0	-1	-5	-6	0	2	-2	1	7	2	0	0
전문과학기술	2	-9	9	3	0	-3	-4	-2	1	-3	-4	-5
사업서비스	1	-4	-2	-3	4	-1	-1	2	-7	0	8	-1
공공행정	6	7	5	3	2	2	-1	-1	-2	4	2	-2
교육서비스	-6	-9	-6	-6	2	0	-1	2	-2	-4	0	-2
보건복지	13	14	0	5	1	3	1	-2	4	4	6	3
예술·스포츠	-7	-3	-3	-2	4	2	-2	-2	-2	-3	-5	2
협회·개인서비스	4	4	1	3	6	1	1	0	0	0	-3	0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성별(좌 : 남성, 우 : 여성)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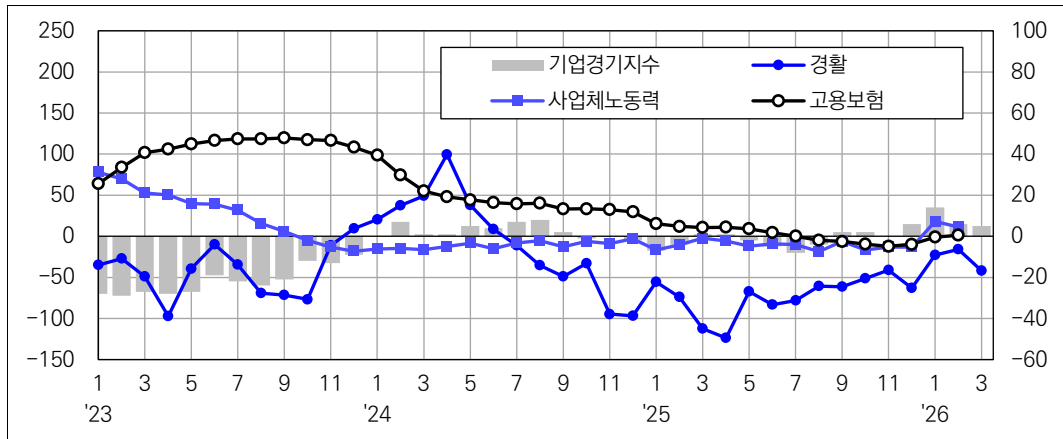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 3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로 전환된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됨.
- 계절조정 전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만 1천 명 감소함.
- 기업경기지수는 83으로 전년동월대비 5p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4]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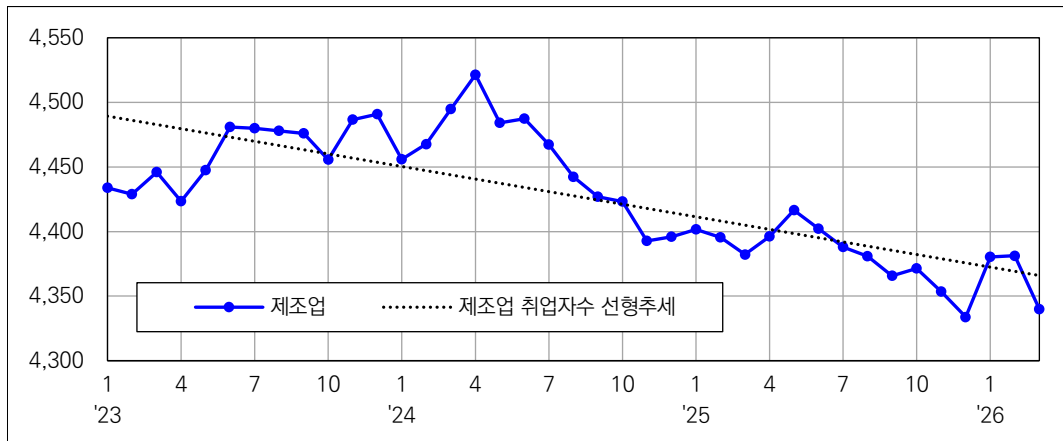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5]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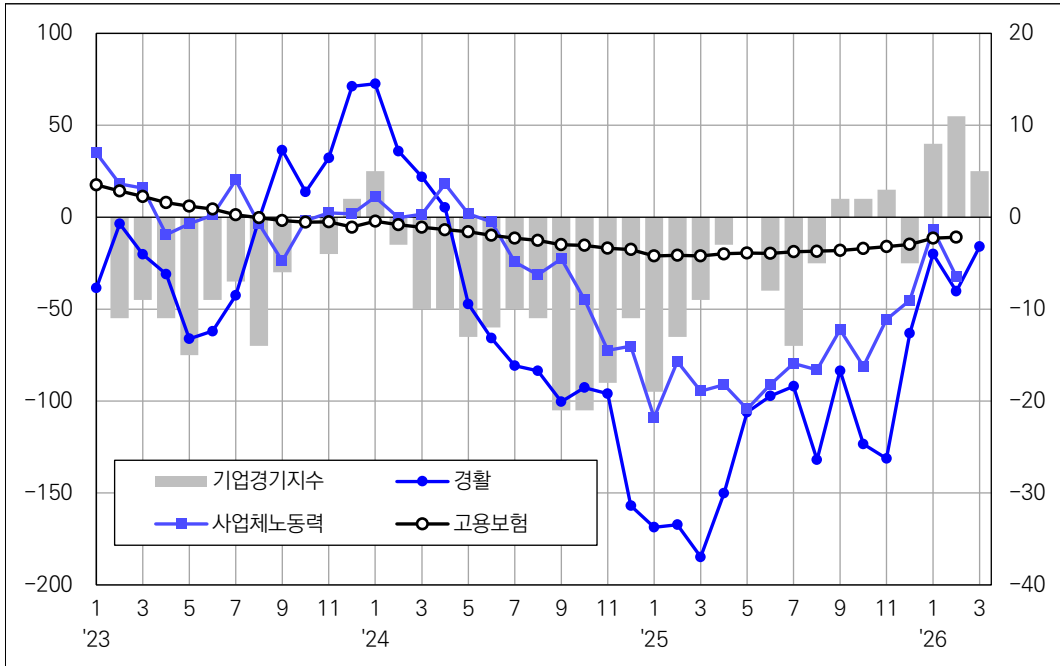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 6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감소폭이 확대됨.
- 기업경기지수는 62로 전년동월대비 5p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6]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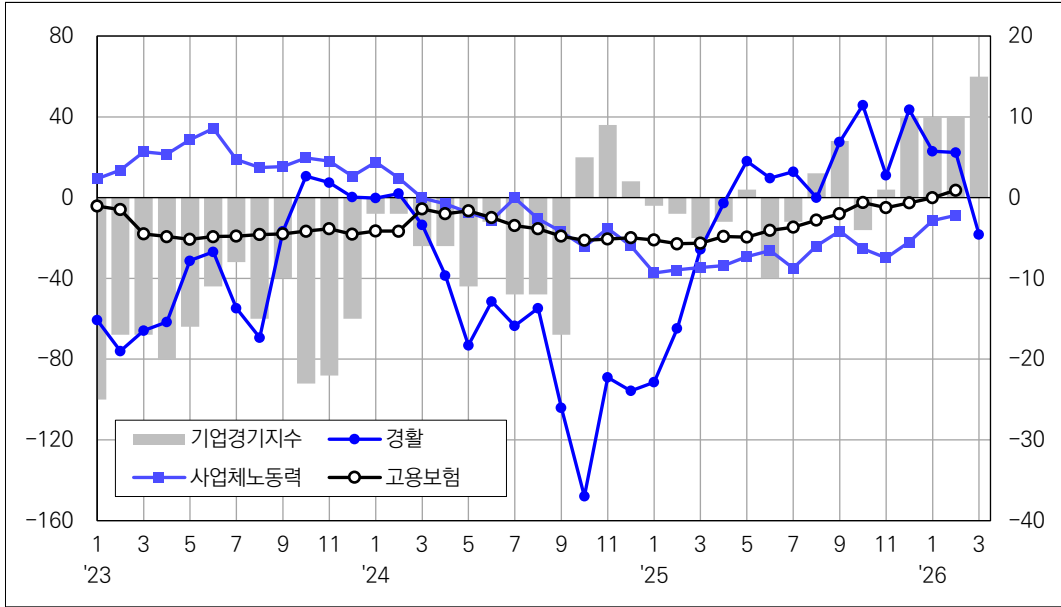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3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1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도소매)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된 반면 피보험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사업체 종사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됨. 기업경기지수는 증가폭이 확대됨.
-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가 증가로 전환됐고, 그 외 고용 지표에서도 증가폭을 유지함.
- (전문과학기술)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그 외 고용 지표에서는 증가폭을 유지함.
- (교육서비스) 취업자 수 및 피보험자 수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됨.
- (예술·스포츠)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됐고, 사업체 종사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됨. 기업경기지수는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7]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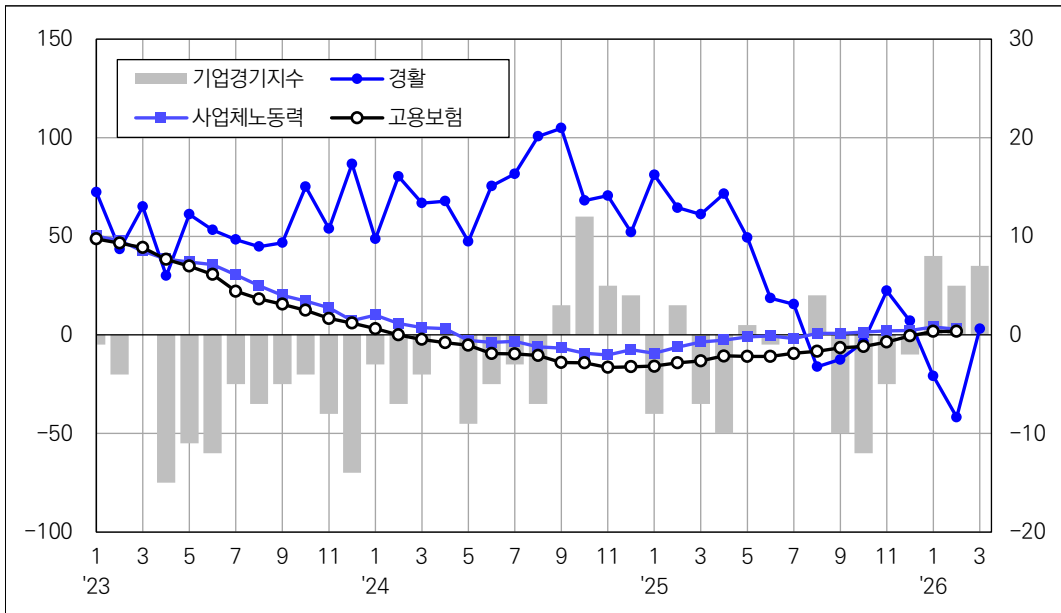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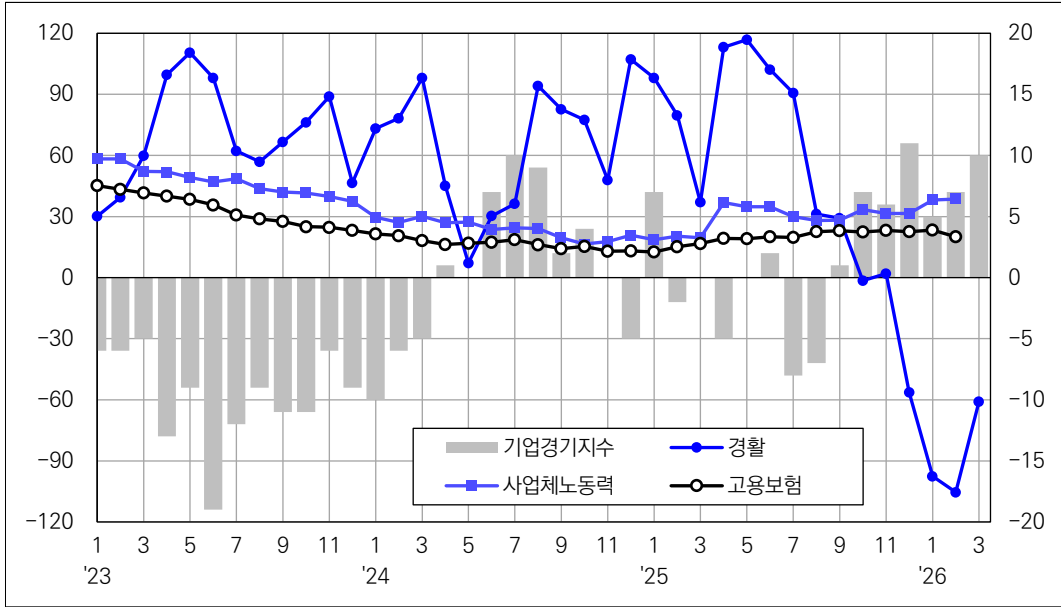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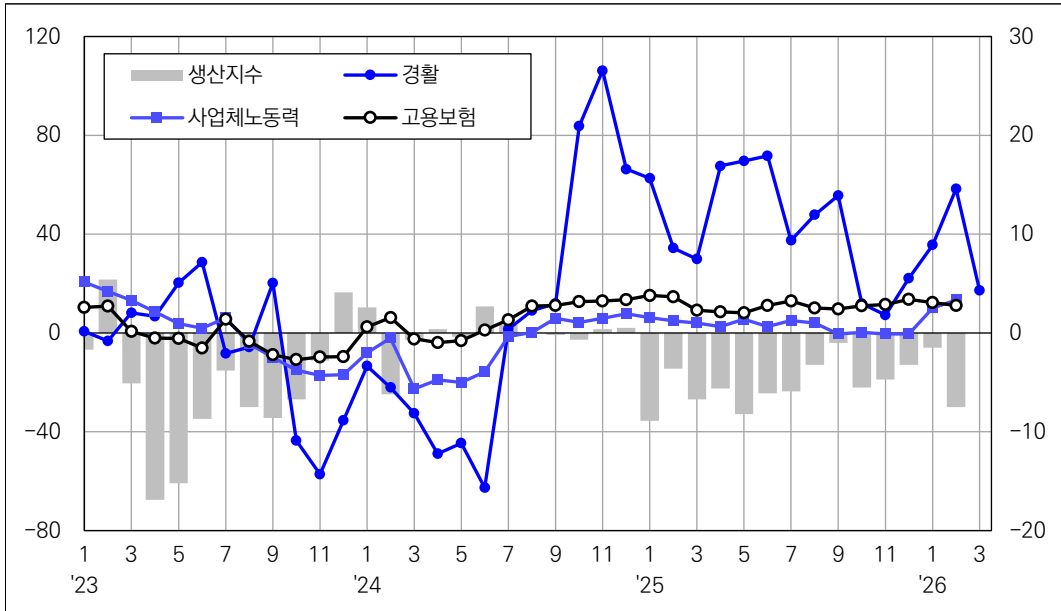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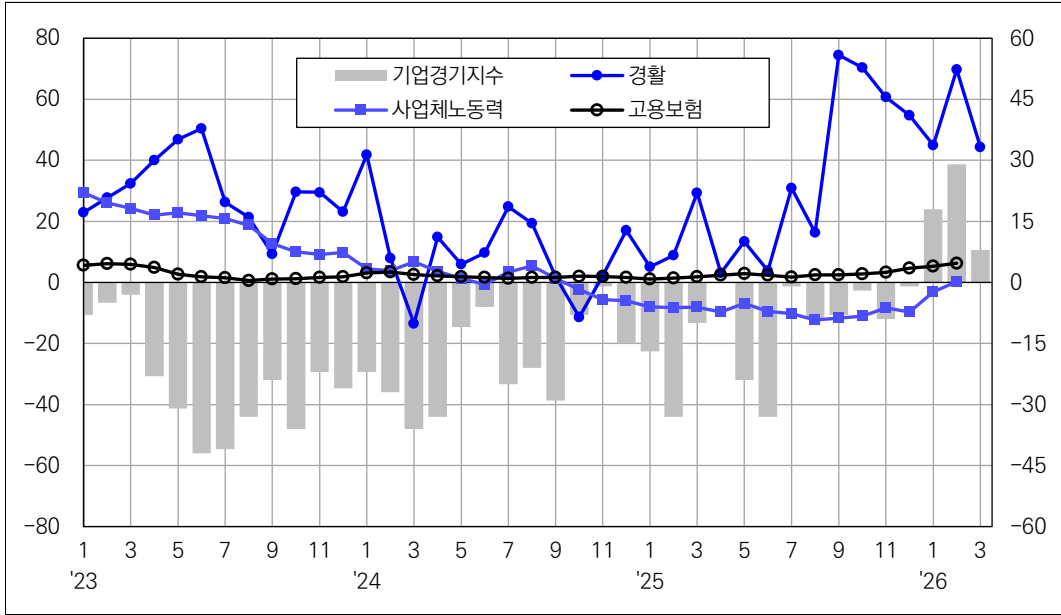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6년 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7.6% 감소

- 2026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58만 8천 원(-7.6%)이었음.
 - 2026년 1월 상용근로자(489만 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7.5%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181만 7천 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는 특별급여(-35.7%)의 감소 영향이 큼. 이는 전년에는 1월이었던 설 명절이 2026년에는 2월에 포함되어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하였음.
 - 부동산업(-87.5%),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84.2%), 교육서비스업(-71.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70.3%), 건설업(-58.2%), 제조업(-29.0%) 등 모든 산업에서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하였음.
 -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근로시간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2.0% 증가하였음.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6년 1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9.4% 감소

-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388만 7천 원)은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	2026	
						1월	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689 (4.6)	3,869 (4.9)	3,966 (2.5)	4,079 (2.9)	4,205 (3.1)	4,967 (15.8)	4,588 (-7.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893 (4.7)	4,095 (5.2)	4,211 (2.8)	4,338 (3.0)	4,472 (3.1)	5,284 (15.9)	4,890 (-7.5)
	정액급여	3,181 (3.4)	3,319 (4.3)	3,444 (3.8)	3,555 (3.2)	3,653 (2.7)	1,322 (3.4)	3,799 (2.0)
	초과급여	208 (3.7)	220 (5.7)	227 (3.3)	240 (5.8)	254 (5.6)	238 (6.0)	241 (1.3)
	특별급여	504 (14.3)	556 (10.4)	540 (-2.9)	542 (0.4)	566 (4.3)	1,322 (80.6)	850 (-35.7)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700 (3.9)	1,747 (2.8)	1,785 (2.2)	1,809 (1.4)	1,745 (-3.5)	1,750 (-4.0)	1,817 (3.8)	
소비자물가지수	102.5 (2.5)	107.7 (5.1)	111.6 (3.6)	114.2 (2.3)	116.6 (2.1)	115.7 (2.2)	118.0 (2.0)	
실질임금증가율	2.0	-0.2	-1.1	0.5	0.9	13.3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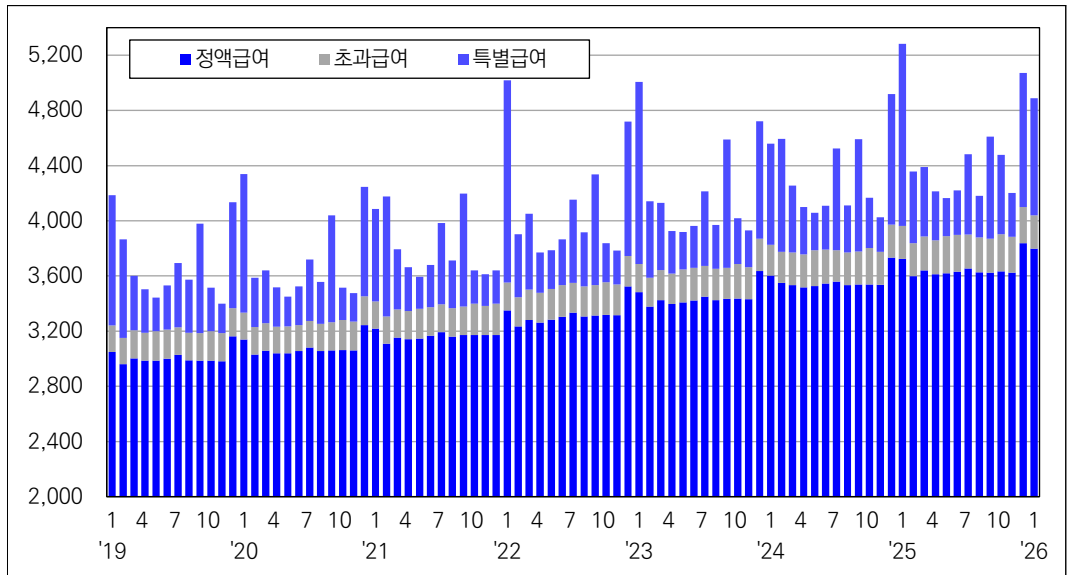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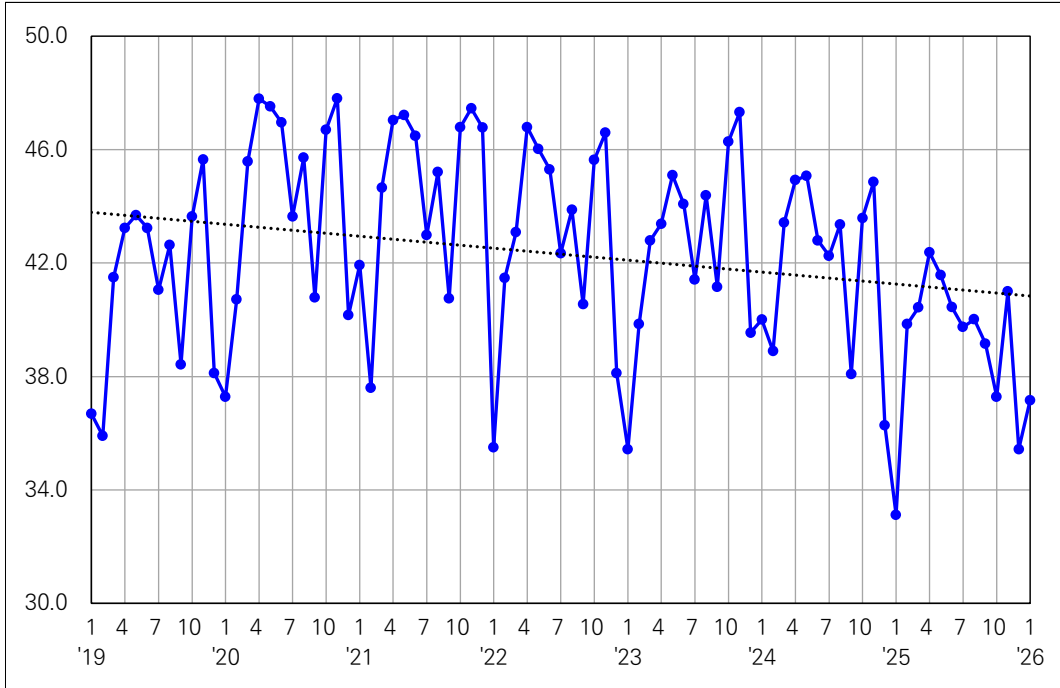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6년 1월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크게 감소

○ 2026년 1월 중소규모(상용근로자 1~299인, 378만 9천 원)와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835만 7천 원)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7.7%, 8.6% 감소하였음.

-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이 크게 감소한 데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 컸음.
- 제조업의 경우,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각각 66.4%, 16.8% 감소하였음. 특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중소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77.1% 감소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는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14.9% 감소하였음. 특히 부동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중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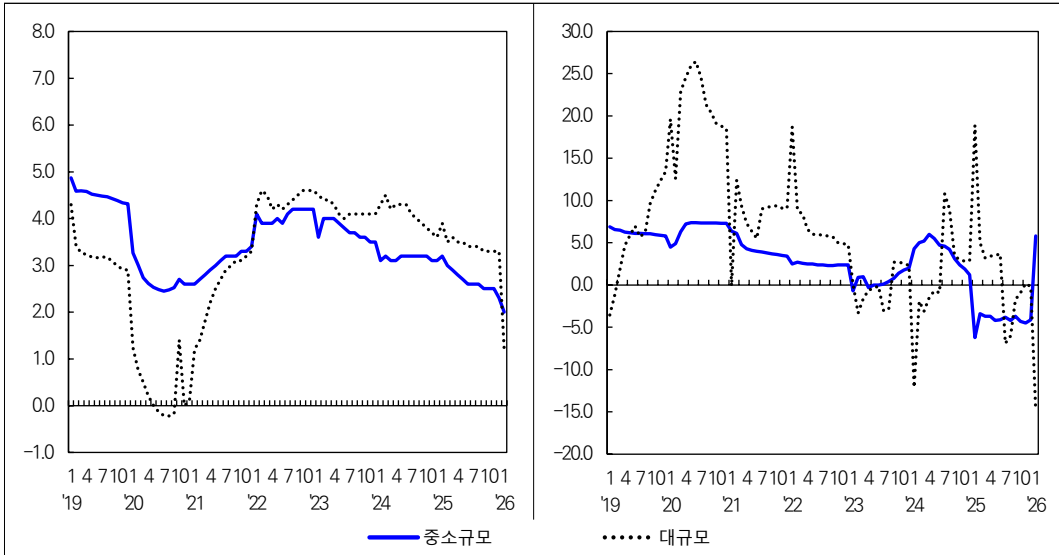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5	2026
					1월	1월
중소 규모	소 계	3,537 (2.2)	3,479 (3.0)	3,733 (2.5)	4,106(11.5)	3,789 (-7.7)
	상용임금총액	3,767 (2.5)	201 (3.2)	3,986 (2.6)	4,378(11.7)	4,038 (-7.8)
	정액급여	3,249 (3.5)	663 (3.1)	3,433 (2.5)	3,479 (3.2)	3,548 (2.0)
	초과급여	187 (0.8)	1,731 (5.6)	205 (3.9)	194 (5.4)	188 (-3.4)
	특별급여	331 (-5.3)	7,318 (2.6)	348 (2.3)	705(93.4)	302(-57.2)
	임시일용임금총액	1,746 (2.0)	7,498 (1.2)	1,695(-4.1)	1,684(-6.2)	1,781 (5.8)
대규모	소 계	6,071 (2.5)	4,873 (2.5)	6,472 (4.0)	9,140(25.9)	8,357 (-8.6)
	상용임금총액	6,212 (2.7)	418 (2.4)	6,631 (4.2)	9,374(25.9)	8,616 (-8.1)
	정액급여	4,325 (4.1)	2,207 (3.6)	4,629 (3.3)	4,835 (3.9)	4,896 (1.2)
	초과급여	406 (7.6)	2,583 (6.1)	468 (8.8)	433 (7.1)	473 (9.1)
	특별급여	1,481(-2.3)	3,642(-2.0)	1,534 (5.7)	4,106(71.7)	3,247(-20.9)
	임시일용임금총액	2,375 (2.3)	3,887 (2.9)	2,439(-0.2)	2,681(18.9)	2,281(-14.9)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6년 1월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임금 감소

○ 2026년 1월 임금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27.6%),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11.5%), 정보통신업(-11.4%), 금융 및 보험업(-10.8%) 등이었음.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1%, 1.3% 증가하였음.
- 1월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935만 7천 원)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44만 6천 원) 순이며, 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40만 9천 원)이었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23	2024	2025	2025	2026
				1월	1월
전 산업	3,966 (2.5)	4,079 (2.9)	4,205 (3.1)	4,967(15.8)	4,588 (-7.6)
광업	4,636 (0.6)	4,900 (5.7)	4,898(0.0)	5,580(3.0)	4,971(-10.9)
제조업	4,633(3.3)	4,755(2.6)	4,917(3.4)	6,468(22.9)	5,910(-8.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188(4.1)	7,687(6.9)	7,874(2.4)	8,702(15.1)	6,297(-27.6)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4,297(3.1)	4,431(3.1)	4,534(2.3)	4,931(12.7)	4,363(-11.5)
건설업	3,359(4.0)	3,455(2.9)	3,550(2.7)	3,992(11.3)	3,715(-7.0)
도매 및 소매업	3,921(3.9)	4,031(2.8)	4,133(2.5)	4,522(7.9)	4,393(-2.9)
운수 및 창고업	4,185(3.6)	4,326(3.4)	4,470(3.3)	4,908(18.0)	4,449(-9.4)
숙박 및 음식점업	2,097(4.7)	2,134(1.8)	2,209(3.5)	2,338(5.5)	2,409(3.1)
정보통신업	5,120(2.4)	5,338(4.2)	5,503(3.1)	6,733(16.1)	5,966(-11.4)
금융 및 보험업*	7,338(0.2)	7,443(1.4)	7,887(6.0)	10,494(20.7)	9,357(-10.8)
부동산업	3,117(1.0)	3,165(1.5)	3,218(1.7)	3,457(4.9)	3,124(-9.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464(1.6)	5,646(3.3)	5,787(2.5)	6,365(15.3)	6,446(1.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687(4.0)	2,787(3.7)	2,846(2.1)	3,123(10.8)	2,962(-5.2)
교육서비스업	3,508(2.1)	3,602(2.7)	3,684(2.3)	4,441(16.7)	3,970(-10.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32(0.3)	3,218(2.7)	3,350(4.1)	3,636(12.8)	3,320(-8.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58(-0.6)	3,111(1.7)	3,170(1.9)	3,775(12.2)	3,375(-10.6)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009(6.2)	3,126(3.9)	3,199(2.3)	3,545(14.5)	3,367(-5.0)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6년 1월부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으로 금융 및 보험업(*) 중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이 공공행정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6년 1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7.4시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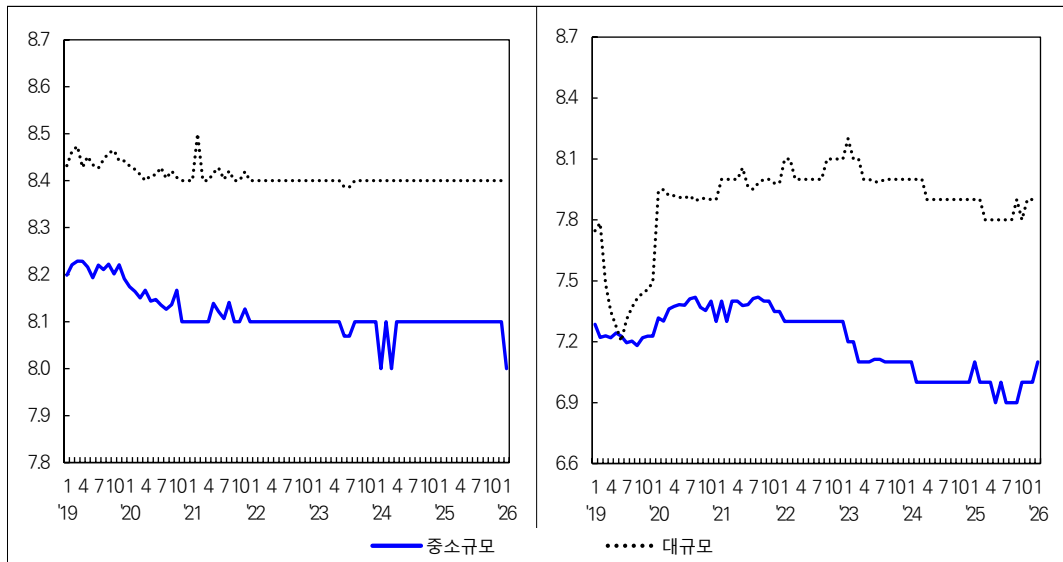
- 2026년 1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0시간(17.4시간 증가)이었음.
 - 1월 근로시간의 증가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3일 증가한 영향이 컸음.
 - 상용근로자(165.4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영향이 크며, 1월 기준 근로일수가 3일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9.0시간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90.6시간)는 8.9시간 증가하였음.

◆ 2026년 1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근로시간 증가

- 2026년 1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각각 157.1시간(17.2시간 증가), 162.6시간(18.5시간 증가)이었음.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중소·대규모 사업체에서 각각 8.8시간, 6.4시간 증가하였음.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3	2024	2025	2025	2026
					1월	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55.3(-1.9)	153.9(-0.9)	152.8(-0.7)	139.9(-14.6)	157.1(12.3)
	상용 총근로시간	164.0(-1.1)	163.0(-0.6)	161.6(-0.9)	146.7(-15.4)	165.6(12.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6.7(-0.9)	155.6(-0.7)	154.3(-0.8)	139.5(-16.2)	158.9(13.9)
	상용 초과근로시간	7.3(-5.2)	7.4(1.4)	7.3(-1.4)	7.2(1.4)	6.7(-6.9)
	임시일용 근로시간	88.2(-8.5)	84.3(-4.4)	82.3(-2.4)	79.8(-9.0)	88.6(11.0)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5(0.1)	159.4(-0.7)	158.3(-0.7)	144.1(-15.3)	162.6(12.8)
	상용 총근로시간	162.1(0.2)	161.3(-0.5)	160.2(-0.7)	145.4(-15.4)	164.5(13.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0.9(0.2)	149.8(-0.7)	148.8(-0.7)	134.1(-16.7)	153.8(14.7)
	상용 초과근로시간	11.2(1.8)	11.4(1.8)	11.4(0.0)	11.2(2.8)	10.7(-4.5)
	임시일용 근로시간	117.5(-5.9)	111.9(-4.7)	109.6(-2.1)	109.4(-11.5)	115.8(5.9)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6년 1월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26년 1월 근로시간 증가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7.7%)이었음.

-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75.5시간), 제조업(172.1시간) 순이었고,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6.3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3	2024	2025	2025	2026
				1월	1월
전 산업	156.2(-1.6)	154.9(-0.8)	153.8(-0.7)	140.6(-14.8)	158.0(12.4)
광업	168.5(-3.6)	169.9(0.8)	166.1(-2.2)	152.6(-12.8)	168.3(10.3)
제조업	170.5(-0.4)	169.7(-0.5)	168.0(-1.0)	151.8(-16.3)	172.1(13.4)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0.0(0.9)	156.6(-2.1)	155.5(-0.7)	153.0(-2.0)	161.5(5.6)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70.0(-2.5)	169.2(-0.5)	168.8(-0.2)	155.1(-13.4)	175.5(13.2)
건설업	128.7(-4.2)	127.7(-0.8)	129.3(1.3)	122.3(-9.8)	136.3(11.4)
도매 및 소매업	159.2(-1.9)	157.8(-0.9)	155.6(-1.4)	142.3(-15.4)	161.6(13.6)
운수 및 창고업	160.6(0.0)	159.5(-0.7)	158.4(-0.7)	148.5(-11.4)	161.2(8.6)
숙박 및 음식점업	138.8(-5.3)	136.6(-1.6)	138.0(1.0)	130.0(-9.7)	142.8(9.8)
정보통신업	162.2(-0.3)	161.8(-0.2)	160.7(-0.7)	144.6(-16.9)	163.2(12.9)
금융 및 보험업*	159.3(-0.3)	157.7(-1.0)	156.2(-1.0)	140.9(-17.7)	162.3(15.2)
부동산업	167.5(-1.1)	166.3(-0.7)	164.9(-0.8)	154.0(-12.3)	167.9(9.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8.8(-0.9)	157.5(-0.8)	156.3(-0.8)	139.4(-17.8)	161.8(16.1)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58.2(-1.0)	157.5(-0.4)	154.4(-2.0)	143.2(-14.7)	159.0(11.0)
교육서비스업	135.9(-0.1)	134.1(-1.3)	132.2(-1.4)	117.0(-16.7)	137.7(17.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0.7(-3.0)	148.3(-1.6)	147.6(-0.5)	134.5(-14.9)	149.2(10.9)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8.2(-1.7)	145.7(-1.7)	145.0(-0.5)	130.5(-14.7)	149.6(14.6)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0.3(0.0)	159.5(-0.5)	159.1(-0.3)	147.1(-13.0)	160.6(9.2)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6년 1월부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으로 금융 및 보험업(*) 중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이 공공행정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